



사진작가 안세홍, 야지마 츠카사가 함께 한 '여섯개의 눈, 위안부 할머니의 일상' 전시 오는 2월26일까지 갤러리 포도나무에서 열린다.



임경옥 작 '고향마을'

# 한·일 작가 앵글에 담긴 위안부 할머니

"나를 데려간 것은 일본군의 앞잡이였어요. 나는 만주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줄만 알았어요. 만주에 도착해보니 공장이 아니라 유곽 같은 곳이었어요." 안세홍 사진작가의 앵글에 담긴 이수단(1922~2016) 할머니는 인형을 진짜 아기처럼 안고 있다. 자신의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할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졌고 정신분열증이 생기면서 아이 사진을 방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경로원장이 선물한 인형을 진짜 아기처럼 돌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전시장에서 만난 사진 속 '할머니들'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모두 쫓겨난 젊은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12살의 나이에 빨래를 낚다 끌려간 필리핀의 루시아 루이즈(1930~) 할머니도, 결혼한 몸에도 딸 아이도 있었던 중국의 웨이 샤오린 할머니(1920~2019)도.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와 가연지소(백서로 79-1)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 '여섯 개의 눈-위안부 할머니의 일상' 전(2월26일까지)은 한국과 일본 두 명의 사진작가가 오랜 시간 기록해온 동아시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재'를 만나는 기획으로 전시 제목 '여섯개의 눈'은 두 사진가가 사용한 카메라를 상징한다. 전시와 함께 콜로키움, 작가와의 대화도 열릴 예정이다.

유재현·정현주 큐레이터가 공동기획한 전시에는 한국인 작가 안세홍과 일본인 작가 야지마 츠카사가

안세홍·야지마 츠카사 작가 2월26일까지 '여섯개의 눈' 사진전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가연지소 2월3일 콜로키움·작가와의 대화

함께 참여했다. 안 작가는 한국 뿐 아니라 동남아 각국 위안부들을 앵글에 담았고, 야지마 츠카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기획관리하고 있다.

작가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할머니들이 머물고 있는 '집'에서 사진을 찍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갤러리 포도나무와 가연지소는 오래된 가옥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갤러리를 비롯해 거실, 안방 등 일상의 공간에 놓인 사진들을 보고 있자면 '빼앗겨 버린' 할머니들의 평범한 일상이 더 아프게 다가온다. 작품 사진에는 각각의 사연이 담긴 설명이 붙어 있어 마치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도 든다.

안세홍은 1996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처음 만난 "그들의 한 맺힌 눈빛과 아픔을 잊을 수 없었"고 이후 오랫동안 한국 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위안부들을 앵글에 담았다. 특히 도쿄 니콘살롱에서 개최하려던 '결집-중국에 남겨진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전이 니콘 살롱의 일방적 결정으로 취소된 적이 있다. 아시아에서 현지 피해 여성 140여 명을 기록한 그는 '나는 위안부가 아니다'(글항아리) 등의 책을 펴냈다.

와세다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니콘 사진연구소에서 사진을 전공한 야지마 츠카사는 아시아 신문 등에서 사진가로 활동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서 온 학생들과 2차 대전 시 일본의 한국인 강제노동자 유골 발굴 작업에 함께 한 그는 이후 한일 역사 속 일본 제국주의 참상을 파헤치는 일을 지속해 오고 있다. 뉴욕타임즈(2022년 8월22일자)에 그에 관한 기사 '일본의 사진작가, 위안부의 처우에 경고를 하다가 실리기도 했다'.

오는 2월3일 오후 3시 전담대(인문대 1호관 313호)에서는 '예술 속의 위안부'를 주제로 콜로키움이 열린다. 이나영 정지영연대 이사장의 강연과 함께 정현주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진다. 또 4일(오후 5시)에는 가연지소에서 안세홍, 야지마 츠카사 작가와의 대화도 개최된다.

정현주 큐레이터는 "이번에 만나는 사진은 이들을 중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생존자라거나 위안부 문제로 싸우는 틀에 가두어 보여주지 보다 인격과 존엄을 지닌 개인으로서 온전하게 지금 존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말한다. 화-일요일 오전 11시 오후 6시.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삶과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

광주문예회관, 박해경·임경옥·정난주·정미희·지연심 초대전

"다양한 작품 세계로의 초대." 작품 속에는 이미 봄이 온듯하다. 화사한 색깔로 풀어낸 자연 풍경과 일상의 모습에 선 따뜻함이 느껴진다.

박해경 작가는 도자기의 형상으로 표현한 다채로운 수국꽃을, 임경옥 작가는 알록달록 색채와 조형성이 인상적인 고향마을 풍경을 선보인다. 또 정난주 작가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한 작품을 전시하며 정미희 작가는 몽환적인 느낌을 만날 수 있는 연꽃 작품을 전시한다. 그밖에 지연심 작가는 산과 들만에 꽃들이 만개한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했다.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합스부르크 600년-매혹의 걸작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오늘 네이버TV 방송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달 27일 오후 7시 네이버TV를 통해 '합스부르크 600년-매혹의 걸작들' 특별전 방송을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를 중계방송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전시를 기획한 양승미 학예연구사와 배우 강훈이 해설자로 나서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방송 중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담당 학예사가 실시간 댓글로 답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그동안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로 접해오던 합스부르크 왕가와 관련해 예술의 후원자이자 수집가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빈미술사박물관과 함께 진행 중인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특별전은 약 600년간 유럽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예술품을 조망한 전시다.

전시에서는 벨라스케스의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를 비롯해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나 대공 등이 모았던 미술품 96점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올해 3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흰 옷을 입은 마르가리타 테레사 공주'



백운광장에 위치한 스트리트 푸드존 전경.

## 'ACC 문화공작소' 2월부터 상시진행



영상 편집 및 화면 테스트 장면 (ACC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의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작소가 2월부터 상시 진행된다. 일명 'ACC 문화공작소' 이며 장소는 문화창조원 장·제작 스튜디오.

올해 ACC 문화공작소는 '일반인 제작지원'과 '전문인 기술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눠 운영한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제작지원'은 레이저 절단기를 활용한 목재, 아크릴 소재의 소형 작품 제작과 도장, 3D프린터 등 소형 제작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한다. 미디어 예술 작업을 하는 이들을 위해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콘텐츠 시연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와 공간 이용도 돕는다.

전문 분야 교육생의 현장 교육을 위한 '전문인 기술지원'은 조명 예술과 다면 매체예술 분야의 실습 프로그램이다. 이론 교육을 마친 전문 교육생은 창작 제작 스튜디오에서 장비 운용 기술과 제작 실습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다.

한편 전당은 지난해 'ACT 열린 창작소' 참가자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완점을 마련하고 서비스를 넓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온 가족이 함께 '백운광장으로 있다'

28일 '한마음 축제', 스트리트 푸드존 일대

광주 남구 백운광장에 위치한 스트리트푸드존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남구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트리트 푸드존 일대에서 '백운광장으로 있다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해당 축제는 애초 지난해 12월 2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폭설로 취소돼 이날로 연기됐다.

행사는 팔씨름 대회 및 골든벨, 각종 먹거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가장 먼저 팔씨름 대회가 열린다. 팔씨름 대회에서 우승 및 준우승을 차지한 시민에게는 삼겹살이 제공된다. 나머지 입상자에게는 스트리트 푸드존 상품권이 랜덤으로 지급된다. 남성부 대회(오전 11시 30분), 여성부 대회(오후 1시)로 나뉘지며 본선 경기

는 오후 4시부터 치러진다.

골든벨 대회는 현장 사점 접수를 통해 2인 1조로 구성된 총 50개 팀의 참가로 오후 2시에 열린다.

질문은 백운광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것으로 1등부터 3등까지 각각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스트리트 푸드존의 6개 부스에는 캘리그래피, 철보 공예, 동물 캐릭터 모스만들기, 돌림판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모든 행사는 스트리트 푸드존과 백양로 3가 일대에서 구매할 영수증을 운영 부스에 제출하면 무료 체험 쿠폰을 통해 즐길 수 있다. 행사 당일 주차는 인근의 서광중학교 주차장과 남구청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 문화재청, 문화유산 산업 청년 인턴 200명 모집

문화유산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 200명을 모집한다.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유산 산업 청년 인턴 2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턴 참여자격은 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문화유산 분야 취업준비자로 학력·전공 제한이 없다. 인턴 운영기관의 자격 요건에 따라 인턴 직무 적합성 등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근무 기간은 인턴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며, 일 8시간 주 5일제로 월 201만원(세전) 수준이다. 선발된 인턴은 해당 기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과 관련된 실습을 하게 된다.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문화유산 분야 청년들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는 총 24억 원 규모로 인턴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